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분노 표현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Concer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Competence and Anger Expression Amo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정계숙<sup>1</sup> 차지량<sup>2</sup> 김미나<sup>3</sup>

Kai Sook Chung<sup>1</sup> Jee Ryang Cha<sup>2</sup> Mi Na Kim<sup>3</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whether concern for children mediates the impact of parenting competence on the anger expression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Methods:** Subjects consisted of 219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6 years old attendi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he mothers were given 3 rating scales about parenting competence, concerns about their children, and anger expression. The Parental Anger Scales measuring anger expression consisted of sub-factors such as situational anger, impulsive behavior, and difficulty of anger control.

**Results:** Using the data collected,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procedure by Baron & Kenny(1968) were conducte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competence, concern about children, and anger expression. Second, mothers' concern about their children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competence and overall anger expression, situational anger and impulsive behavior, an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competence and difficulty with anger control.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approach and content of parent education to help parents with young children control their anger.

**key words** parenting competence, anger expression, concern for children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3A2067778).

#### 1 제1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e-mail : lemon611@naver.com)

#### 3 공동저자

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I. 서론

최근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대 관련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폭행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가해자는 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노도

현, 2018).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폭행이나 사망의 이유가 자녀가 떼를 쓰고 울거나 실수로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것 등 발달적으로 미숙한 유아의 정상적인 행동에 부모가 과잉으로 분노하고 대응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다.

분노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로, 대인이나 대물에 대한 불쾌반응을 유발하는 정서 경험으로 미미한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까지 여러 강도를 가진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이는 단순히 화가 났다는 상태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신체, 사고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차원적인 정서 특질이다(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는 여러 처하는 상황에 따라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상태분노와 개인의 성격 특질로서 안정성을 갖는 분노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특성분노로 나누어지는데(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전자는 주로 개인이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후자는 안정적인 성격 특질이다. 적절한 분노와 분노 표현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Novaco, 1976),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신체적 상해를 주지 않고도 분노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서부터 평온을 되찾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Marwan & Larissa, 2006). 그러나 분노가 지나치거나 억제될 경우 난폭한 말씨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쉬우므로 인간관계가 악화(김용섭, 1984)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잦은 분노표출은 과잉반응적이고 강압적이며 적대적인 훈육을 포함하는 양육 방식과 연관성이 있다(Ateah & Durrant 2005; Leung & Slep, 2006). 강압적, 적대적 양육은 대인 관계의 원형이라 일컬어지는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켜(차지량, 2017) 초기 발달과정에 있는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을 저해한다(박혜정, 정계숙, 2018; 손민정, 김광웅, 2005; Crockenberg, 1987; Garner & Estep, 2001). 뿐만 아니라, 분노 표출이 임상 수준에 가까울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한지숙, 2014; Baydar, Reid, & Webster-Stratton, 2003; Denham et al., 2000). 따라서 부모의 분노는 그 표현과 노출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할 부정적인 정서임에 틀림없다.

매일 여러 구성원과 관계를 하며 함께 살아가는 어느 가정에서도 사건의 내용, 빈도와 길이는 서로 다르나 분노가 존재한다(DiGiuseppe,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1차 양육자로서 많은 스트레스,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는데(정계숙, 손환희, 류수민, 차지량, 2016),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 발달의 단계를 거쳐 점차 성숙하게 된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대체로 처음 경험하는 부모역할이 자녀와 가족 전체와의 문제에 확대되어 복합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하는 가족 관리자(family manager) 단계에 속하여(Unell & Wyckoff, 2000),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 중 자녀가 만 2세부터 5세까지의 시기는 부모가 권위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발달단계(Galinsky, 1997)에 있다. 더욱이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게 되면 자율성 욕구는 크게 증가하지만 스스로 행동 조절은 안 되어 고집스런 저항으로 부모의 한계를 시험하는 반면, 부모는 유아의 보다 성숙된 행동을 기대하는 상충되는 특징(Dix, Ruble, & Zambarano, 1989)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내적 갈등이나 양육스

트레스는 더욱 커진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저 출산율로 인해 대개 양육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인 초기 부모기에 속하므로 자녀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개별적 욕구의 해결과 사회화 행동을 훈육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의 부모는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기대와 다른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다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분노 관련 선행연구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표현(박동영, 2012), 부모 분노 척도 개발(정계숙 등, 2016), 부모 분노와 유아 탄력성발달(박혜정, 정계숙, 2018), 분노 조절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강영순, 김종남, 2012; 차지량, 2017)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분노 조절과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분노조절의 문제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 경험, 부모역할 수행과 양육 지식(정미현, 2011; 최금미, 류정희, 2018) 등과 같은 양육의 기본 조건과 아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Schaefer, 1959), 의사결정능력, 기대(Englund, Luckner, Whaley, & Egeland, 2004), 양육 목적, 상위양육(Hawk & Holden, 2006), 자기 지각 등을(Holden, 2015) 바탕으로 하는 양육 관련 부모 역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 표현을 많이 하게 되나(김은경, 고진강, 2016; 박동영, 2012), 반대로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 능력이 있다면 분노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부모의 적절한 분노 표현은 자기보호 기능 혹은 의사소통 양식의 하나로 작용 가능하며(김현주, 최해림, 2012), 자녀와의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Rebecca, 2002). 이렇듯 부모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만 분노 표현의 수준은 부모 간에 개인차가 있다. 이에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양육과 부모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자녀의 심리적 건강성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양육 상황에서의 적절한 분노 표현에 개인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양육행동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양육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 역량은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지식, 양육기술을 포함하는 인지적 차원과 부모 자신의 자아상, 자기에 대한 가치, 동기, 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의 능력을 말한다(조형숙, 김명하, 2013; Goldstein, Freud, & Solnit, 1973; Herman, 1990). 이는 연구자에 따라 부모 역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명순, 고여훈(2016)은 부모 역량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 역량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동과 더불어 양육에 관한 동기 및 가치관과 같은 내적 요인을 포함하며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계숙과 최은실(2013)은 ‘부모 참 역량’의 한 요인으로 양육역량을 제안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적절히 갖추는 것을 양육역량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양육 역량이 높으면 부모는 아동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적응력을 가진다(Azar & Cote, 2002). 반면, 양육 역량이 낮은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낮아지고(Woods, 2011)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

거나 권위주의적 태도로 대한다고 한다(Sanders & Woolley, 2005). 때문에 양육 역량이 낮은 부모는 양육과정에서 좌절과 스트레스, 우울, 무력감을 경험하고 양육 관련 결정과 수행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Brookman-Frazee, 2004). 다시 말해, 양육역량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발달이나 요구 및 상황의 변화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와 자신의 발달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유아기 자녀를 둔 초기 부모 발달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양육역량이 높으면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무력감,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분노 정서 또한 적응적으로 다룰 수 있어, 이를 잘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양육에 대한 연구의 접근 중에는 양육 특질(parenting trait), 부모 사고(parent cognition)의 유형과 영향을 밝히는 것이 포함된다. 전자는 부모의 수용과 거부, 아동 중심과 부모 중심, 민주적 태도와 독재적 태도, 촉진자와 조정자 역할 등으로 유형화되어 연구되고 있고, 후자는 아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귀인, 지식과 신념, 의사결정 능력, 기대, 목적, 상위양육, 자기 지각 등에 대해 연구한다(Holden, 2015). 그 중 아동에 관한 부모의 사고가 관심을 받는 것은 각 문화의 가치나 기대, 유아를 대하는 성인의 태도는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유윤영, 2011).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행동의 사회화는 부모가 초기부터 시작되는 부모 기대의 본질이며 그 결과라(김혜순, 2011)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문화에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사고나 신념에 따른 기대를 가지며 이에 맞춰 양육하게 된다. 김민정(2011, 2013)은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가 타인과 어울려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익히고 사회의 규칙과 요구를 인식하며 내면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이를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밝혔다. 즉, 부모의 자녀 발달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기대감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이 달라지며 이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순, 2011; 박은희, 2004; 부성숙, 윤은정, 2018; 정미조, 1990; Edgington, 2007; Holton, 2009; Kuczynski & Kochanska, 1995).

모든 양육 신념은 8개 요소, 즉 구성된 지식, 성립된 지식 영역, 절대적/확률적 성질, 문화적 전통, 감정, 목적/의도성, 가치 및 응용(praxis) 등으로 구성된다(Siegel & McGillicuddy-De Lisi, 2002). 부모의 신념에 토대한 자녀 발달에 대한 기대 또한 감정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데,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기대를 가짐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 태도, 성취, 능력에 대해 부모가 갖는 주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의미하는 것인(박은희, 이소희, 2004) 반면, 자녀에 대한 염려는 자녀와의 동일체감 및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해하거나 자녀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 불안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위지희, 채규만, 2015).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높은 학업적, 사회적 경쟁 속에서 자녀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어머니 본인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녀에 대한 염려는 어머니가 자녀를 중요하게 여겨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평가하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child-based self worth)(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는 자녀의 학업과 사회적 성공에 많은 영향을 준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따라서 유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염려는 유아의 행동발달이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염려는 양육불안척도의 한 하위요인으로 추출된 바 있는데(위지희, 2014), 이는 본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으므로 양육불안 또는 불안과 양육관련 경험과의 관련성을 통해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불안은 영아와 학령아동의 불안(Möller, Majdandžić, & Bögels, 2015; Pereira, Barros, Mendonça, & Muris, 2014)에 영향을 주며, 유아들의 불안, 주의집중과 정서조절 측면에서의 기질적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고(김우경, 방희정, 2015; 박애경, 2015; West & Newman, 2003), 유아기 자녀의 인지적 역량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기대감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부성숙, 윤은정, 2018)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자녀의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염려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야기 한 결과로 추측된다. 위지희(2014)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을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반면 자율적 태도는 더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로 인해 조바심과 불안을 느끼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지적이나(이영미, 한재희, 2013), 자녀의 도덕성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높을수록 통제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김민정, 2011)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어,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할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은 낮아지는 반면 부모로서의 좌절과 불안감은 높아지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자녀와의 관계 및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위지희, 2014). 따라서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염려라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결국 유아를 사회화하는 상황에서 통제와 억압을 많이 하게 만듦으로써 유아의 자율성 욕구와 상충되어 갈등이 유발되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분노 정서의 경험 빈도나 표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염려에 대한 집중적,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분노 표현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높은 양육 역량은 자녀에 대한 염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의 분노 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민정(2011, 2013)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자녀기대감과 역할지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인지적 역량 기대는 공감하고 격려하는 발달자극 역할, 양육 및 지지 역할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생활습관 및 도덕성에 대한 기대는 발달자극 역할, 양육 및 지지 역할지능과 상관을 보였다. 나아가 정정란(2007)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모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변인은 부모의 권위 있는 양육태도임을 밝혀 부모 역량과 유아에 대한 기대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자녀 염려에 대한 Reijneveld, Meer,

Weifferink, & Crone(2008)의 연구에 의하면 14개월-12세 아동의 부모들 중 유아기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이민 노동자 가족과 저소득층 가족이 유아에 대해 잦은 염려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염려를 전문가가 확인해주는(confirm)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부모가 염려하는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대개 이민 노동자 가족과 저소득층 가족은 부모의 역량(parental competence)을 결정하는 부모 자원(parental resources)(Belsky & Barends, 2002)이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는 유아기 자녀의 부모에게 많이 나타나는 자녀 발달에 대한 염려가 부모의 양육 역량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염려 또한 부모의 양육에 관련된 개인 내적 심리상태와 양육태도와 같은 정서적 차원, 양육과 지지에 필요한 역할기능의 인지적 차원 및 양육의 자원 등을 아우르는 양육 역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가 권위 있는 태도로 부모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양육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높은 기대수준에 기인하는 자녀에 대한 염려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염려와 양육 역량의 관련성을 실증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의 높은 양육 역량은 자녀 양육 시에 경험하는 분노표현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며,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부모의 분노 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지만 이는 부모의 양육 역량이 높을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세 개 요인 간의 관계를 두고 볼 때, 양육 역량과 분노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분노표현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쉬운 분노 표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 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 Y, U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6세 유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219명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N = 219)

구분	빈도	퍼센트
<b>모 연령</b>		
25세~30세 이하	4	1.8
31세~35세 이하	69	31.5
36세~40세 이하	113	51.6
41세~46세 이하	33	15.1
<b>모 학력</b>		
초등학교 졸업	2	0.9
고등학교 졸업	25	11.4
대학교 졸업	174	79.5
대학원 졸업	18	8.2
<b>모 직업 유무</b>		
있음	124	56.6
없음	95	43.4
<b>자녀 성별</b>		
남	107	48.9
여	112	51.1
<b>자녀 연령</b>		
3세	19	8.7
4세	66	30.1
5세	94	42.9
6세	40	18.3
<b>자녀 수</b>		
1명	61	27.9
2명	134	61.1
3명	24	11.0
합계	219	100.0

## 2. 연구도구

### 1) 양육역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정계숙, 박희경, 차지량, 2016)에서 양육역량 요인을 뽑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양육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의 3개 하위요인, 총 18개 역량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양육역량은 자녀발달 특징·육구 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 방향 목표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 생애 진로 개발 및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 등과 같은 9개 역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각 역량 요소는 지식, 기술 및 태도 차원에 관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양육역량은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6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양육역량의 점수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요소별 점수는 지식, 기술 및 태도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구하고 전체 점수는 각 요소별 평균점수를 총합하여 구한다. 따라서 양육역량의 총점은 9점~54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역량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가 .95로 나타났다.

### 2) 자녀에 대한 염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지희, 채규만(2015)이 개발한 부모용 양육불안 척도 중 자녀에 대한 염려 요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염려요인은 자녀의 행동이 어머니 자신의 기준과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며 자녀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등 자녀에 대한 염려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총점의 범위는 5점~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가 .77이었다.

### 3) 분노표현

유아 어머니의 분노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otti(2010)와 Gavita, David, Digiuseppe, & DelVecchio(2011)의 부모분노척도를 정계숙 등(2016)이 한국의 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재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황적 분노, 충동적 행동,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3개의 요인이 포함된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평정한다. 따라서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108점 범위이며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전반적인 분노표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용, 문항 수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분노척도의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상황적 분노	아이가 자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험	10	.89
충동적 행동	아이에게 화가 나면 참지 못하여 사물이나 아이에게 나타나는 강압적인 행동	5	.79
분노조절의 어려움	아이에게 화가 나면 생리적 각성이 높아지면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어려움	3	.65
전체		18	.93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먼저 3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3~6세 유아들의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 300



명에게 설문지를 1차로 배부하였다. 설문지에 본 연구의 취지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란을 만들어 각 어머니가 서명하고 응답한 후 밀봉하여 유아 편으로 기관에 보내도록 안내하였다. 회수가 부진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두 차례 응답을 독려했으나 절반 정도의 회수율을 보여, 동일한 절차로 2차 설문지 180부를 2개 유아교육기관에 추가 배부하여 최종 총 22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1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분노 표현에 대한 양육역량의 영향에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68)의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유의성 검증은 비표준화 계수와 비표준화 계수 간의 표준오차를 활용한 Sobel test(Sobel, 1982)를 통해 확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양육역량,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과의 상관관계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역량,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왜도와 첨도를 구하여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표 3에 의하여 각 변인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문항 평균(표준편차)은 4.19(.59)로 '그런 편이다' 이상의 수준이며 자녀에 대한 염려는 2.38(.71)로 '보통' 이하이었다. 어머니 분노표현 전체가 2.46(.83), 상황적 분노는 2.58(.88), 충동적 행동은 2.45(.92), 분노조절의 어려움이 2.05(.86)이었다. 왜도는 모든 변인이 .26 ~ 1.10 범위로 절대값 3 미만이며, 첨도는 모든 변인이 -.36 ~ 1.89 범위로 절대값 10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양육역량과 자녀에 대한 염려, 분노표현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양육역량과 자녀에 대한 염려와의 상관은  $-.18(p < .01)$ , 양육역량과 분노 총점 및 상황적 분노, 충동적 행동 및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하위요인과의 상관은  $-.14(p < .05)$  ~  $-.23(p < .01)$  범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 간에는 .45 ~ .62 사이의 정적 상관이 있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p < .001$ ). 따라서 양육역량과 분노표현과의 상관보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 간의 상관이 더 크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염려와 상황적 분노표현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어머니의 양육역량,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과의 상관관계 (N = 219)

변인	양육역량	자녀 염려	분노 전체	상황적 분노	충동적 행동	조절 어려움	문항 M	문항 SD	왜도	첨도
양육역량	1						4.19	.59	.77	.86
자녀 염려	-.18**	1					2.38	.71	.26	-.36
분노 전체	-.21**	.60***	1				2.46	.83	.78	1.29
상황적 분노	-.23**	.62***	.96***	1			2.58	.88	.54	.53
충동적 행동	-.16*	.50***	.92***	.82***	1		2.45	.92	.65	.86
조절 어려움	-.14*	.45***	.85***	.73***	.81***	1	2.05	.86	1.10	1.89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양육역량의 분노표현에 대한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분노표현 전체와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는 .93 ~ 1.00, VIF 지수는 1.00 ~ 1.07로 나타나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었다. 어머니 양육역량의 분노표현 전체와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1단계의 양육역량이 매개 변인인 자녀에 대한 염려에 미치는 설명력은 6%( $F = 15.10, p < .001$ )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볼 때 분노표현 전체에 대한 양육역량의 설명력은 11%( $F = 26.51, p < .001$ )로 유의하며 자녀에 대한 염려가 추가되면 설명력은 38%( $F = 69.00, p < .001$ )로 증가하였다. 이때 자녀에 대한 염려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55(t = 9.97, p < .001)$ 이고 양육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19(t = -3.41, p < .01)$ 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양육역량 보다 분노표현 전체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양육역량의 영향력은 단독으로는  $\beta = -.33(t = -5.15, p < .001)$ 이었고 매개변인인 자녀에 대한 염려의 투입으로 그 영향력이  $\beta = -.19$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설명변인이므로, 양육역량이 분노표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상황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여부를 알아보면, 2단계에서 상황적 분노에 대한 양육역량의 설명력은 13%( $F = 33.93, p < .001$ )로 유의하며 자녀에 대한 염려가 추가되면 설명력은 43%( $F = 81.73, p < .001$ )로 증가하였다. 이때 자녀에 대한 염려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56(t = 10.59, p < .001)$ 이고 양육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22(t = -4.17, p < .001)$ 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양육역량 보다 상황적 분노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상황적 분노에 대한 양육역량의 영향력은 단독으로는  $\beta = -.37(t = -5.83, p < .001)$ 이었고 매개변인인 자녀에 대한 염려의 투입으로 그 영향력이  $\beta = -.22$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설명변인이므로, 양육역량이 상황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충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여부를 알아보면, 2단계에서 충동적 행동에 대한 양육역량의 설명력은 7%( $F = 16.39, p < .001$ )로 유의하며 자녀에 대한 염려가 추가되면 설명력은 26%( $F = 39.93, p < .001$ )로 증가하였다. 이때 자녀에 대한 염려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46(t = 7.69, p < .001)$ 이고 양육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14(t = -2.37, p < .05)$ 로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양육역량 보다 충동적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양육역량의 충동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단독으로는  $\beta = -.27(t = -4.09, p < .001)$ 이었고 매개변인인 자녀에 대한 염려의 투입으로 그 영향력이  $\beta = -.14$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설명변인이므로, 양육역량이 충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여부를 알아보면, 2단계에서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대한 양육역량의 설명력은 3% ( $F = 7.82, p < .01$ )로 유의하며 자녀에 대한 염려가 추가되면 설명력은 20%( $F = 28.95, p < .001$ )로 증가하였다. 이때 자녀에 대한 염려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44(t = 6.96, p < .001)$ 이고 양육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07(t = -1.18, p > .05)$ 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양육역량 보다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양육역량의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대한 영향력은 단독으로는  $\beta = -.19(t = -2.80, p < .01)$ 이었고 매개변인인 자녀에 대한 염려의 투입으로 그 영향력이  $\beta = -.07$ 로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니었으므로, 양육역량이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노표현 전체, 상황적 분노, 충동적 행동 및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있어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Sobel, 1982)를 통해 검증한 결과, 분노 표현 전체의 Z값은  $-3.66(p < .001)$ , 상황적 분노의 Z값은  $-3.63(p < .001)$ , 충동적 행동의 Z값은  $-3.50(p < .001)$ , 그리고 분노조절의 어려움의 Z값은  $-3.36(p < .001)$ 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자녀 염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분노표현 전체, 상황적 분노 및 충동적 행동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염려가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지며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모 양육역량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N = 219)

영향		B	S.E	β	t	R <sup>2</sup>	F
1단계 (독립→매개)	양육역량→자녀염려	-1.83	.47	-.26	-3.89***	.06	15.10***
분노표현전체							
2단계 (독립→종속)	양육역량→분노표현 전체	-.56	.11	-.33	-5.15***	.11	26.51***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양육역량→분노표현 전체	-.31	.09	-.19	-3.41**	.38	69.00***
	자녀염려→분노표현 전체	.64	.06	.55	9.97***		
상황적 분노							
2단계 (독립→종속)	양육역량→상황적 분노	-.66	.11	-.37	-5.83***	.13	33.93***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양육역량→상황적 분노	-.40	.10	-.22	-4.17***	.43	81.73***
	자녀염려→상황적 분노	.70	.07	.56	10.59***		
충동적 행동							
2단계 (독립→종속)	양육역량→충동적 행동	-.50	.12	-.27	-4.09***	.07	16.39***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양육역량→충동적 행동	-.27	.11	-.14	-2.37*	.26	39.93***
	자녀염려→충동적 행동	.60	.08	.46	7.69***		
분노조절의 어려움							
2단계 (독립→종속)	양육역량→분노 조절의 어려움	-.33	.12	-.19	-2.80**	.03	7.8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양육역량→분노 조절의 어려움	-.13	.11	-.07	-1.18	.20	28.95***
	자녀염려→분노 조절의 어려움	.53	.08	.44	6.96***		

\*p < .05 \*\*p < .01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양육과정에서 자녀에게 나타내는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역량과 분노 충점 및 하위요인인 상황적 분노, 충동적 행동, 분노조절의 어려움 간에 그리고 양육역량과 자녀에 대한 염려 간에는 낮으나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분노표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상관의 크기와 방향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분노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양육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적어지며 보다 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분노 조절이 보다 용이하였다. 이는 양육

역량은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능력이므로(이방실, 김민정, 정미라, 2016; 정계숙, 최은실, 2013; 조형숙, 김명하, 2013), 양육역량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양육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염려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분노표현의 양상은 더욱 부정적이었고 자녀 염려는 양육역량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자녀에 대한 염려는 상황적 분노표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신뢰가 낮고 불안감을 많이 가질수록 어머니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면서 여러 양육의 상황에서 자주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지희(2014)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부모효능감과 부적 상관관이 있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할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이 낮아지면서 좌절과 불안감은 높아지므로 결국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취하기 쉽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양육 실체는 잦은 분노표현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역량 보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분노표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은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사고하는 능력과 기술은 개인의 자원과 상황에 따라 발달되기 때문이다(Demick, 2002; McDermott, 2008). 물질 지향적 사회에서 높은 학업성취와 치열한 입시 및 직업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신념(최은아, 2014)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특성과 결합되면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남들보다 더 나은 자녀로 키우기 위한 노력은 현실의 자녀에 대한 불만과 불안으로 연결되어, 자녀를 걱정하고 때로는 좌절하여 자녀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그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한 양육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는 건전하고 소신 있는 양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자녀의 행동과 능력에 대한 태도, 귀인, 신념, 기대, 상위 양육(meta-parenting), 지각 등의 부모 사고의 특성(Holden, 2015)과 양육역량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유아 발달의 원리 등의 지식을 구체적인 양육 실체에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과 태도인 양육역량의 강화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양육역량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접근은 양육역량의 증진과 함께 자녀에 대한 건강한 사고를 갖게 하는 이중효과가 있어, 자녀에 대한 염려를 긍정적인 기대로 바꾸기 위한 사고 변화 교육에 비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분노 전체, 상황적 분노 및 충동적 행동에는 자녀에 대한 염려가 부분적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분노조절의 어려움에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상황적 분노 표현과 충동적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매개할 때 단독적 작용 보다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상황에 따른 분노 표출과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는 힘을 가졌지만,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매개하면서 그 영향력이 거의 없어짐으로써 양육역

량은 어머니가 분노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직접적으로 또는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높은 양육역량은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적응력으로 자신감 있는 양육을 할 수 있게 하여(Azar & Cote, 2002)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자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수록 양육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행동 양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분노표출을 억제하는 힘이 약화되거나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Holden(2015)이 자녀 양육에 대해 단일 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매개 변인은 부모의 사고(parental cognition)라고 하였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 귀인, 및 문제해결에 대한 잘못된 인지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주요 결정인자라고 한 사실(Seng & Printz,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부모의 사회적 사고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나 사회경제적 수준처럼 먼 영향요인(distal variables)이 아니라 가장 쉽게 부모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근접 영향요인(proximal variables)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Holden, 2015). 부모의 사고 틀을 바꾸거나 수정하면 부모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의 부정적 영향,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목표이자 행동 규제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점(김민정, 2011, 2013) 및 부모의 분노가 자녀의 분노 반응, 충동적, 도전적 행동 및 정서행동 문제 등 정서, 사회적 발달(Garner & Estep, 2001; McKay, Fanning, Paleg, & Landis, 1996)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부모 사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자녀에 대한 염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기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점 발견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유아와 학령 초기 아동의 대표적인 성격 강점이 사랑, 친절, 창의성, 유머, 활력, 호기심 등임을 밝혀낸 Park과 Peterson(2006), Loker, Tan, Mendez 그리고 Dedrick(2012), 박영아와 이미나(2014) 등의 성격 강점에 대한 연구는 단지 성격 강점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적 강점 기반의 양육 및 교육적 개입이 유아기부터 필요하며 또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강점 기반 양육과 개입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가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분노 요인의 경우보다 더 크고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점은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나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자녀의 문제 행동 지도방법, 자녀의 도덕성 함양 및 인성 교육에 대한 내용 또는 영유아발달과 부모역할 등을 주로 다루어왔다(김길숙, 2017; 김화정, 고선아, 2015). 이는 전반적인 양육지식과 기술의 증진에 초점을 두어온 기존의 접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분노표현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양육 대상 및 부모자신의 심리적 특징과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분노를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도 부모가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끔 돕는데 있다. Marwan과 Larissa(2006)에 따르면, 양육 시 자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일지라도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경우 자녀에게 심리적, 신체적 상해를 주지 않고도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우선적인 과제와 욕구를 반영하여, 부정적 감정을 잘 관리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고려하여 비공격적인 언어 형태로 분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객관적,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노진형, 2005; Holden & Hawk, 2003), 부모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김현주, 최해림, 2012), 애착 안정성(김현주, 이정윤, 2011; 문소현, 박영주, 2008), 양육 스트레스(김은경, 고진강, 2016; 박동영, 2012) 등 개인내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은 부모의 적절한 분노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역량과 함께 자아존중감, 효능감, 자기 이해 등 사회·정서적 역량의 개발과 관리를 포함하는 자기체계역량(정계숙 등, 2016)의 증진을 돕는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분노표현은 양육역량과 자녀에 대한 염려의 영향을 받으며, 자녀에 대한 염려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의 하위 요인에 따라 부분 또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부모 발달적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드러내게 되는 분노표현에 양육역량과 자녀에 대한 염려가 미치는 영향과 그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자녀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불안이 높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분노라는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다루어 어머니들의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회수율이 매우 낮아 본 연구의 결과가 일부 개방적이고 기관에 협조적인 어머니들의 특징일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부모 변인과 함께 유아 및 가족, 사회·문화 환경 등으로 변인을 확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적절히 관리, 조절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보다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영순, 김종남 (2012). 자기이해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분노조절 및 자아분화에 미치는 효과. *뇌교육연구*, **10**, 106-128.
- 김길숙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2.
- 김민정 (2011).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녀기대감과 부모역할지능 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3), 155-170.
- 김민정 (2013). 양육신념과 자녀기대감 및 부모역할지능에 대한 부-모 간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8**(3), 311-332. doi:10.13049/jofw.2013.18.3.311
- 김용섭 (1984). 대인관계론. *학생생활연구*, **2**, 5-16.

- 김우경, 방희정 (2015).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 아동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2**(4), 67-81. doi:10.15284/kjhd.2015.22.4.67
- 김은경, 고진강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24**(3), 151-160. doi:10.17547/kjsr.2016.24.3.151
-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doi:10.15703/kjc.12.3.201106.965
- 김현주, 최해림 (2012).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어머니 분노수준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9**(1), 53-73.
- 김혜순 (2011). 어머니의 자녀성숙행동기대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 만족지연능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159-181.
- 김화정, 고선아 (2015). 부모교육 TV 프로그램 내용 분석- EBS ‘부모’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1), 229-251.
- 노도현 (2018. 1. 7).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부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71449001&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71449001&code=940601)에서 2019년 4월 10일 인출.
- 노진형 (2005). 부모교육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적용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85-104.
- 문소현, 박영주 (2008).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43-149.
- 박동영 (2012).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3), 1170-1177. doi:10.5762/KAIS.2012.13.3.1170
- 박애경 (2015).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우울간의 상관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375-392.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 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아, 이미나 (2014). 한국과 중국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성격강점 비교 분석. **유아교육연구**, **34**(6), 327-346. doi:10.18023/kjece.2014.34.6.014
- 박은희 (2003).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 이소희 (2004).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1), 35-56.
- 박혜정, 정계숙 (2018).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노가 유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147-168. doi:10.20437/KOAECE23-2-07
- 부성숙, 윤은정 (2018). 어머니의 자녀기대감이 일상생활 규칙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8**(1), 115-136. doi :10.18023/kjece.2018.38.1.005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손민정, 김광웅 (2005). 부모와 아동의 분노 표현 방식이 자기주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2**(1), 89-103.



-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13-227. doi:10.16983/kjsp.2009.6.2.213
- 위지희 (2014).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지희, 채규만 (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45-970. doi:10.15842/kjcp.2015.34.4.005
- 유윤영 (2011). 어머니와 교사의 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기대와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133-158.
- 이명순, 고여훈 (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435-456.
- 이방실, 김민정, 정미라 (2016). Q 방법론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형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0**(1), 265-288.
- 이영미, 한재희 (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담학연구**, **14**(2), 1401-1422. doi:10.15703/kjc.14.2.201304.1401
-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6**(2), 535-560. doi:10.18023/kjece.2016.36.2.023
- 정계숙, 손환희, 류수민, 차지량 (2016). 유아와 학령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부모 분노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515-539. doi:10.20437/koaece21-1-22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미조 (1990). 아버지 직업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발달적 기대수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 (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 **부모교육연구**, **8**(1), 69-85.
- 정정란 (2007). 유아발달과 부모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제 변인들의 관계분석. **아동보육연구**, **3**(2), 43-78.
- 조형숙, 김명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상태, 자기분화,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271-293.
- 차지량 (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액션러닝 기반 분노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1**(3), 315-343.
- 최금미, 류정희 (2018). 부모-자녀관계 조화, 부모역할수행,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연구**, **5**(1), 23-37.
- 최은아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행복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지숙 (2014). 학대부모를 위한 분노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아동복지연구**, **12**(2), 83-105.
- Ateah, C. A., & Durrant, J. E. (2005). Maternal use of physical punishment in response to child misbehavior: Implications of child abuse prevention. *Child Abuse & Neglect*, *29*(2), 169-185.

- doi:10.1016/j.chiabu.2004.10.01
- Azar, S. T., & Cote, L. R. (2002). Sociocultural issues in the evaluation of the needs of children in custody decision making: what do our current framework for evaluation parenting practices have to offer?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5(3), 193-217. doi:10.1016/S0160-2527(02)00102-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aydar, N., Reid, M. J., & Webster-Stratton, C. (2003). The role of mental health factors and program engagement in the effectiveness of a preventive parenting program for Head Start mothers. *Child Development*, 74(5), 1433-1453. doi:10.1111/1467-8624.00616
- Belsky, J., & Barends, N. (2002). Personality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3. Being and becoming a parent* (2nd ed., pp. 415-438). Mahwah, NJ: Erlbaum.
- Brookman-Frazee, L., & Koegel, R. L. (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6(4), 195-213. doi:10.1177/10983007040060040201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4), 964-975. doi:10.2307/1130537
- Demick, J. (2002). Stages of parent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3. Being and becoming a parent* (2nd ed., pp. 243-270). Mahwah, NJ: Erlbaum.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doi:10.1017/S0954579400001024
- DiGiuseppe, R. (1999). End piece: Reflections on the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3), 365-379. doi:10.1002/(SICI)1097-4679(199903)55:3<365::AID-JCLP8>3.0.CO;2-3
- Dix, T., Ruble, D. N., & Zambaran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6), 1373-1391. doi:10.2307/1130928
- Edgington, C. R. (2007). Relation between parenting goal and parenting strategy in positive and negative child behavior contexts: An experiment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Oklahoma, USA.
- Englund, M. M., Luckner, A. E., Whaley, G. J. L., & Egeland, B. (2004). Children's achievement in early elementary school: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expectations, and quality of assist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723-730. doi:10.1037/0022-0663.96.4.7

- Galinsky, E. (199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아이의 성장, 부모의 발달**. (권영례 옮김). 서울: 창지사(원판 1987).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29-48. doi:10.1207/s15566935eed1201\_3
- Gavita, O. A., David, D., Digiuseppe, R., & DelVecchio, T. (2011).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arent anger scal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0*, 505-511. doi:10.1016/j.sbspro.2011.10.099
- Goldstein, J., Freud, A. (1973).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Hawk, C. K., & Holden, G. W. (2006). Meta-parenting: An initial investigation into a new parental social cognition construc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321-342. doi:10.1207/s15327922par0604\_3
- Herman, S. P. (1990). Special issues in child custody evalu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6), 969-974. doi:10.1097/00004583-199011000-00024
- Holden, G. W. (2015). *Parenting: A dynamic perspective*. Los Angeles, CA: Sage.
- Holden, G. W., & Hawk, C. K. (2003). Meta-parenting in the journey of child rearing: A cognitive mechanism for change.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189-210). Thousand Oaks, CA: Sage.
- Holton, R. (2009). Parental cognitive antecedents of child prosocial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Nebraska, USA.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3), 616-628. doi:10.1111/j.1467-8624.1995.tb00893.x
- Leung, D. W., & Slep, A. M. S.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24-534. doi:10.1037/0022-006X.74.3.524
- Loker, T., Tan, T. X., Mendez, L. R., & Dedrick, R. (2012). Adopted chinese girls' character strengths from preschool to school age: A longitudinal exploratory study. *Michigan Family Review, 16*(1), 38-55. doi:10.3998/mfr.4919087.0016.103
- Sinaceur, M., & Tiedens, L. Z. (2006). Get mad and get more than even: When and why anger expression is effective in negoti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3), 314-322. doi:10.1016/j.jesp.2005.05.002
- McDermott, D. (2007). *Developing caring relationships among parents, children, schools, and communities*. Los Angeles, CA: Sage.
- McKay, M., Fanning, P., Paleg, K., & Landis, D. (1996). When anger hurts your kids: A parent's

- guide.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Möller, E. L., Majdandžić, M., & Bögels, S. M. (2015). Parental anxiety,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anxiety: Differential associations for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4(9), 2626-2637. doi:10.1007/s10826-014-0065-7
- Notti, J. A. (201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 anger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New York, USA.
- Novaco, R. W. (1976). The functions and regulation of arousal of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10), 1124-1128. doi:10.1176/ajp.133.10.1124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3), 323-341. doi:10.1007/s10902-005-3648-6
- Pereira, A. I., Barros, L., Mendonça, D., & Muris, P.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nxiety, parenting, and children's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cognitive vulnerabilitie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3(2), 399-409. doi:10.1007/s10826-013-9767-5
- Rebecca, C. C. (2002). Parents' awareness and management of emotion: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Reijneveld, S. A., Meer, G. de, Wefferink, C. H., & Crone, M. R. (2008). Parents' concerns about children are highly prevalent but often not confirmed by child doctors and nurses. *BMC Public Health*, 8(1), 124-133. doi:10.1186/1471-2458-8-124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doi:10.1111/j.1365-2214.2005.00487.x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doi:10.1037/h0041114
- Seng, A. C., & Printz, R. J. (2008). Parents who abuse: What are they thinking?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4), 163-175. doi:10.1007/s10567-008-0035-y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igel, I. E., & McGillicuddy-De Lisi, A. V. (2002). Parental beliefs and cognitions: The dynamic belief systems model.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Vol. 3, pp. 485-508). Mahwah, NJ: Erlbaum.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C. D. Spielberger & J. N. Butch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3 (pp. 119-187). Hillsdale, NJ: LEA.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Publishers.
- Unell, B. C., & Wyckoff, J. L. (2000). *The eight seasons of parenthood: How the stage of parenting constantly reshape our adult identities*. New York: Random House.
- West, A. E., & Newman, D. L. (2003). Worried and blue: Mild parental anxiety and depression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cience & Practice*, 3(2), 133-154. doi:10.1207/S15327922PAR0302\_02
- Woods, K.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medical risk, parental stress, and self-efficacy on parent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 of prematur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Nebraska, USA.

논문투고: 19.02.15  
수정원고접수: 19.03.23  
최종게재결정: 19.04.12